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❻ 선승의 출가 ②



▶한줄요약
선승의 출가로 귀결되는 선승 출가담에서 '태몽-탄생-유년기의 특별한 행실-출가' 등의 서사소가 모두 갖춰지고 서로 긴밀히 연결됐다.

완결된 출가담…선승의 태몽·탄생·유년기

3. 완결된 출가담과 삼생성불(三生成佛)

선승의 출가로 귀결되는 선승 출가담에서 '태몽-탄생-유년기의 특별한 행실-출가' 등의 서사소가 모두 갖춰지고 서로 긴밀히 연결됐다. 강조점이 다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니 출가담으로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승의 생존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 선승: 도의(道義 ?~825), 진감(眞鑑 774 ~ 850), 적인(寂忍 785~861), 무염(無染 801~898), 체징(體澄 804~880), 범일(梵日 810~889), 지증(智證 824~882), 징효(澄曉 826~ 900), 도선(道詵 827~898), 순지(順之 830~895), 낭공(朗空 832~916), 진경(眞鏡 855~923), 낭원(朗圓 854~930), 여엄(麗嚴 862~930), 형미(逈微 864~917)

고려 선승: 경보(慶甫 868~947), 혜진(惠眞 869~958), 경유(慶猷 871~921), 긍양(兢讓 878~956), 법인(法印 900~975), 원공(圓空 930~1018), 적연(寂然 952~1014), 혜소(慧昭 972~1054), 지광(智光 984~1067), 혜덕(慧德 1038~1095), 원경(元景 1045~1114), 의천(義天 1055~1101), 원각(圓覺 1107~1174), 일연(一然 1206-1289), 원오(圓悟 1215~1286)

조선 선승: 무학(無學 1327~1405), 수미(守眉 조선전기), 휴정(休靜 1520~1604), 유정(惟政 1544~1610), 학린(學璘 1575~1650), 명조(明照 1593~1661)

근대기 선승: 몽월영홍(夢月泳泓 1870년경), 금오(金烏 1896~1968)

이상의 선승들이 출가하기까지 그 사연을 담은 출가담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그 구조가 완성되고 그것이 다음 선승의 출가담에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된다. 그중 '태몽'과 '유년기의 특별한 행실'이 핵심 서사소로 작동했다. 이는 가볍게 지나칠 현상이 아니다. 선승이 입적하면 제자들은 스승과 관련된 자료를 엄선하고 행장을 모아 임금에게 바친다. 임금은 평소 존경했던 선승의 가르침을 길이 전하기 위해 비석을 세우고자 한다. 임금은 당대 최고 문인에게 비문 작성을 명했는데 그때 그 자료와 행장까지 문인에게 전한 것이었다. 그러니 문인에 의해 작성된 비문 어느 한 구절도 허투루 선택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태몽은 선승의 전생이 수행승이거나 보살이었음을 암시한다.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을 거듭하는 목숨 건 수행을 해야 하고 보살도를 완성하는 데도 몇 생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것은 또한 신라에서 고려까지 이어진 화엄 삼생성불론(三生成佛論)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지증(智證)이 의상의 대표제자인 범체(梵體)로부터 〈화엄경〉을 배우다 선승이 되었고, 그 외 적인(寂忍), 무염(無染), 도윤(道允), 도선(道詵) 등도 화엄을 공부하다 선종으로 옮겨간 사실은 화엄과 선종의 긴밀한 관계를 말해준다.

삼생성불론은 삼생에 걸쳐서 성불한다는 뜻이다. 첫 번째 생은 견문생(見聞生)으로, 과거세에 노사나불을 친견하고 보현보살의 법문을 들어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종자를 얻는 자리이다. 이것은 전생의 선근(善根)에 해당한다. 두 번째 생은 해행생(解行生)으로서, 지금 이생에서 〈화엄경〉을 믿고, 원돈신해(圓頓信解, 원만한 화엄의 교리를 믿고 이해하여 일순간에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의 법문을 듣고 원행(圓行)을 닦는 자리이다. 해행생은 첫 번째 생인 견문생의 결과로 얻은 현재의 삶이기도 하다. 세 번째 생은 증입생(證入生)으로, 내세에 깨달음을 이루어 불과(佛果, 부처의 경지)에 드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삼생을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단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일념(一念) 속에서 일어나는 동시적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전자가 하근기의 차원이고 후자가 상근기의 차원이라고도 한다. 또 삼생성불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일생성불, 이생성불, 일념성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고 한다. 신라에서 시작된 화엄사상을 갈무리한 균여대사(均如大師, 923~973)는 삼생성불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삼생이 선후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출가담 다음 출가담에 영향 줘
태몽·유년기의 행실 핵심작용
보살도 완성에 다생 필요 암시

선승 출가담이 태몽 요소를 통하여 선승의 전생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삼생성불론이 밝혀준 성불의 희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써 선승은 전생의 선업을 통하여 이생이나 다음 생에 성불할 가능성을 도드라지게 갖게 되었다.

선승의 부모는 어느새 자라난 자기 자식이 출가를 결심하고 부모 곁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자식의 전생과 잉태와 관련된 태몽을 다시 떠올린다. 태몽은 부모가 자식의 출가를 허락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다. 선승의 출가는 태몽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암시되고 지지되는 셈이다.

4. 유년기 선승의 특별한 행실

선승이 유년기에 보여주는 특별한 행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성찰로 우리를 이끈다. 어린 무염(無染, 801)은 반드시 가부좌를 하며 앉았고 사람을 만나면 합장을 하였다. 벽에 불상을 그렸고 모래로 탑을 쌓았다. 현욱(玄昱, 788)은 말라가는 개울에 물고기가 버둥대는 걸 보면 물을 길어다 부어주었다. 석초(釋超, 912)는 오신채 냄새를 맡지 못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속세를 벗어나려는 생각만 했다. 원응(圓應, 1052)은 하루 한 번 이상 젖을 먹지 않았고 오신채가 든 음식도 먹지 않았다. 탄연(坦然, 1070)은 일찍부터 속세를 벗어날 뜻을 간직했고 인생살이를 뜬구름처럼 보았고 명예나 재물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었다. 어린 징엄(澄儼, 1090)은 아무리 귀한 장난감을 앞에 놓아주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어린 지인(之印, 1102)은 오신채와 육류를 싫어했다. 종린(宗璘, 1127)은 부모와 불상을 볼 때마다 공손히 예를 올렸고 음식에 조금이라도 누린내나 비린내가 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다. 원감(圓鑑, 1226)은 속세를 벗어나려는 마음뿐이었다. 원각(圓覺, 1379)은 나면서부터 울지 않았다. 아버지가 별세한 뒤로는 묵언하다가 15살 되던 날 아침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는 갑자기 껄껄 웃었다. 그리고는 "크도다. 태양의 정기여!"라고 외친 뒤에야 비로소 말을 하고 웃음을 지었다. 21살에 장가를 들었지만 세상살이에 대한 흥미를 전혀 갖지 못했고 욕심을 뜬구름처럼 버렸다. 유정(惟政, 1544)은 개울에서 모래를 쌓아 탑을 만들고 돌을 세워 부처님으로 삼았다. 꽃을 따고 밤과 도토리, 산과일 등을 주어 공양을 올렸다. 모은 밤을 주고 어른들이 잡은 자라를 사서 물에 놓아주었다. 아이들은 주운 밤을 어린 유정 앞에다 모았는데 그러면 유정은 아이들에게 밤을 똑같이 나눠 주고 자기는 언제나 빈 손으로 돌아갔다.



용성 스님 진영.

근대기 선승들의 유년기도 다르지 않다. 용성(龍城, 1864)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터에 가곤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낚아 올린 물고기를 몰래 물속으로 다시 놓아주었다. 자기 집 머슴의 동생이 병이 들자 자기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고 돌봐주었다. 몽월 영홍(夢月泳泓, 1870년경)은 비린 것을 피했고 언제나 조용한 곳으로 혼자 가서는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구하(九河, 1872)는 불쌍한 고아들을 만나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밥이나 의복을 아낌없이 주었다. 가축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광경을 볼 때는 물론 꽃이나 나무를 꺾는 것만 보아도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물을 흘렸다. 운봉(雲峰, 1889)은 13살 때 부친을 따라 팔공산 은해사로 갔다가 불상을 바라보고는 환희심과 동경심을 억누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했다. 어린 고암(古庵, 1899)은 산만 바라보아도 기뻤고 스님만 보면 따라가고 싶어졌다. 어린 청담(靑潭, 1902)은 짐승을 잡는 것을 보면 눈을 감고 마구 울어댔고, 물고기의 배를 가르는 것을 보면 얼굴을 찡그리고 못 견뎌했다.

이 같은 유년기 선승의 특별한 행실은 근대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다. 어린 선승들은 불교적 상징을 만들어 공경을 다한다. 생명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이 특별하다. 욕심이 전혀 없었고 속세로부터 떠날 마음을 일찍부터 가진다. 요컨대 어린아이인데도 다른 존재들만 위하고 걱정했지 자기에 대한 애착이나 욕심은 전혀 없다.

출가한 수행자에게도 애욕을 끊는 것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원각경〉 '미륵장'은 애욕을 끊는 것이 수행의 출발이라 하고, 일체중생이 갖가지 은애(恩愛)와 탐욕(貪欲)으로 말미암아 윤회하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갈(愛渴)을 제거하라고 가르친다.

선승이 이승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생성불이나 삼생성불의 목표와 관련될 수 있지만 아울러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살정신과도 연관이 있다. 유년기 선승의 특별한 행실은 그 전생이 애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뽑아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탈하지 않고 이승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대자비력(大慈悲力)과 대서원력(大誓願力)으로써 동사섭(同事攝, 중생과 생사고락을 함께 함으로써 중생을 돕고 구제함)을 나타내어 중생을 구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보살이 잠시 부모의 애욕에 편승하고 모체의 태를 빌려서 생사세계에 들어왔지만, 애욕의 뿌리가 자신에게는 추호도 없는 것이다. 선승의 이런 점은 그 부모의 마음 상태와도 심각하게 비교된다.

어린 선승들이 보여준 '애욕 근절'과 '세상 명리 버림'은 세속 애욕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나는 어린 진감(眞鑑)처럼 '서쪽 하늘을 향해 꿇어앉아 해가 저물어도 일어날 줄 몰랐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지금은 또 어떠한가.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Taego Order of Buddism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스님! 커피한잔 주시면
아주 작은 염불에도 엄청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소리로 화답하는 디지털 소리 체험을 드립니다.

주의 : 한국법당 시설들 거의 중국, 베트남 심지어 메이커를 지워버림
본품 : 100% MADE IN KOREA 특징 : 고가제품, 고장없음, 소리월등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